

한국 EFL 학습자의 학문적 글쓰기에서 나타난 영어 등위접속사의 사용 양상*

표시연

(숙명여자대학교)

Abstract

Pyo, SiYeon. 2017. "Cross-Usage Patterns of English Coordinators and Connective Adverbials in Korean EFL Learner's Academic Essay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5(4). 185-210. The present study explored usage patterns of English coordinating conjunctions(CCs) in Korean EFL learners' and native English speakers' written corpus. Focusing on the morpho-syntactic use and cohesive functions of *and*, *but*, *or* and *so* as focal examples in academic pros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employed. Findings from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opinion essays showed that both groups used *and* most frequently, which is used mostly in word/phrase levels rather than in clause levels. On the other hand, *so* is especially used as a clause-level CC. Because *or* and *and* used most frequently in word/phrase levels are recognized easily as CCs, they rarely appear in a sentence-initial position. By contrast, *so* and *but* used more often in a clause level appear in a sentence-initial position more frequently, which may lead L2 learners to confuse CCs with connective adverbials(CAs). Based on the Subset Principle, it may be interpreted that morpho-syntactic properties on CAs in Korean transfer to those on English CCs due to the morpho-lexical difference of CCs between the two languages.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L1 transfer seems to gradually retreat at an intermediate level where L2 learners start to perceive the registers of academic prose.

Keywords: English coordinating conjunction, learner corpus, connective adverbials, Academic essay, the Subset Principle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 18090).

1. 서론

문어 텍스트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영어쓰기교육은 텍스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한 담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담화 표지의 사용에 대한 지식은 문장 간의 논리적인 의미 구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담화를 전개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글쓰기에서 이러한 연결어나 연결사와 같은 담화 표지의 올바른 사용은 모국어와 상관없이 원어민에게조차도 어렵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다(Johnson 1992). 더욱이, 영어의 표현 기능(productive skill)에 대한 노출 기회가 제한적인 EFL 환경에 있는 L2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담화 표지의 습득은 글의 논리적, 수사적인 전개를 위한 전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국어 간섭의 문제까지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한 오류의 양상을 보이는 현상으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Alenberg and Tapper 1998; Blagoeva 2001; Bolton, Nelson & Hung 2003;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Field & Yip 1992; Kang 2008; Kim 2004; Oh 2009a, 2009b; Yoon 2006).

그러나 SLA 분야에서 담화 표지 사용에 관한 상당수의 관련 연구가 연결사의 종류, 분포, 빈도수에 치중하여, 원어민과 비원어민 간에 차이를 비교하고, 원어민에 비해 비원어민 학습자들이 어떤 연결사를 얼마나 과잉 사용하는가에 관한 기술적 연구와 피상적 해석에만 그치고 있다(Blagoeva 2001; Bolton, Nelson & Hung 2003; Field & Yip 1992; Kang 2008; Kim 2004). Blagoeva(2001)은 접속어 사용에서 불가리아 L2 학습자의 코퍼스와 영어 원어민의 코퍼스를 각각 문어와 구어에서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L2 학습자가 접속어를 과잉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because를 원어민과 비교하여 문어에서는 3.3배, 구어에서는 2.2배가량 더 자주 사용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그 원인을 불가리아어에서는 이유나 목적을 나타낼 때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모국어를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Altenberg 1984; Milton & Tsang 1993; Oh 2009a, 2009b), 이에 대해

단순히 구어체나 모국어의 단편적인 특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Kang(2008), Back(2012)의 연구에서는 학문적 글쓰기에서 나타난 한국인 학습자의 접속부사 사용이 원어민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고, 접속부사를 대화체나 구어체에서처럼 등위접속사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so*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언어학적 분석은 미흡하다. 모국어와 다른 체계를 가진 L2 접속어에 대한 형태-통사적(morpho-syntactic) 차이와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 인식에 기반을 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문맥을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글쓰기는 단순히 구어적 표현들을 코드화하여 글로 옮기는 것 이상의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므로, 체계적인 훈련과 복합적인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없이 영어에 반복적인 노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오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규범문법과 실제 원어민의 사용 양상 간에 차이가 있다면, L2 학습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구어와 모국어 영향을 문제까지 더해져 오용 및 과용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등위접속사 사용 양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처럼 문두(sentence-initial position)에 사용하는 현상은 문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규범 문법에서 벗어난다. 전통적으로 *and*, *but*, *or* 같은 등위접속사는 학문적 글쓰기에서 문두에 나올 수 없다(Biber et al. 1999).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쓰기에서 뿐만 아니라, 원어민의 쓰기에서도 등위접속사가 문두에 사용되는 경우는 흔히 발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학문적 글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대학 영어 쓰기 수업에서 오류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오류 분석의 차원의 넘어, 원어민의 실제 사용 양상과의 비교 및 다각적인 언어학적 고찰을 통해 등위접속사에 대한 실제 사용과 규범문법 간에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2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등위접속사의 사용 양상을 각각 문맥 속에서 살펴볼 것이

다. 구체적으로 중급 학습자의 학문적 글쓰기에서 영어 등위접속사가 구, 절, 문장 단위에서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지, 형태-통사적, 텍스트적 기능의 면에서 L2 습득의 발달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어휘-통사적 특성

등위접속사는 동일한 통사적 지위를 지닌 요소들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등위 구조를 만들어 낸다. 영어의 등위접속사는 기본적으로 *and*, *but*, *or* 세 가지가 있고, 각각 첨가, 대조, 선택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등위접속사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However*, *Therefore*, *Additionally* 같은 접속부사와 혼용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이는 학문적 글쓰기에서 따라야 하는 규범 문법에는 어긋나지만, 일반적 글쓰기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는 등위접속사를 이접사(disjunct)로 간주하는 구어의 영향이라는 주장(Quirk et al. 1972)만 후속 연구들에서 반복이 되고 있을 뿐이다. L1과 체계가 다른 L2 습득의 측면에서 절 단위(clause-level)를 넘어 절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장치를 습득할 때 수반되는 형태-통사적, 텍스트적 기능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에 대해 영어와 모국어 간에 등가 어휘의 표면적 의미가 그대로 전이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모국어의 영향과 관련하여 두 언어에서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어휘-형태적(lexico-morphological) 특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영어에서는 접속부사와 등위접속사가 모두 자립 형태소(*free morpheme*)인 반면, 한국어에서는 각각 다른 형태소로 존재한다. 한국어에서 접속부사는 ‘그리고’, ‘그러나’처럼 영어와 동일하게 자립 형태소로 존재하지만, 등위접속에 해당하는 말은 ‘~하고’, ‘~지만’과 같이 접속어미(*conjunctive suffix*)의 의존 형태소(*bound morpheme*)로 존재한다. 즉, 한국

어에서는 등위접속사가 범주의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의미를 지닌 접속어미의 의존 형태소로 존재하는 속성 때문에 영어의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처럼 과잉 사용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¹⁾

〈표 1〉 영어와 한국어의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형태

형태	등위접속사		접속부사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자립형태소	and, but, or		Furthermore, However, Thus...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의존형태소		~(하)고, ~지만, ~거나...		

Kang(2008)의 연구에서는 ‘~(하)고’ 같은 의존 형태소의 접속어미로 사용된 경우를 절간 접속사(sentence-middle interclausal conjunctions)로, ‘그리고’처럼 자립 형태소의 등위 접속사를 문장 간 접속사(sentence-initial intersentential conjunctions)로 분류하였다. 그녀는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쓴 내러티브 에세이와 원어민에게도 동일하게 실시한 에세이에서 나타난 접속어의 사용빈도와 종류를 비교하고, 종속접속사 및 접속부사를 포함한 접속어를 첨가, 대조, 인과, 시간의 하위범주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인 한국어 에세이에서 절간 접속사의 사용 빈도가 문장 간 접속사의 사용 빈도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이러한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에서도 등위접속사를 ‘I fell *and* started bleeding.’과 같은 절간 접속사로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I fell. *And* I started bleeding.’같은 문장 간 접속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높게 나왔다. 오히려, 통제집단인 원어민의 에세이에서 절간 접속사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았다. 이 연구는 격식성(formality)이 다소 떨어지는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쓰는 내러티브 에세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구어체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어와 다른 격식성을 요구하는 대학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학문적 글쓰기에서는 나타난 양상은 어떻게

1) 이는 ‘부분집합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데, 2.3에서 다룰 것이다.

나타나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즉, 격식성 있는 학문적 글쓰기에서도 등위접속사가 절간 접속사보다 문장 간 접속사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등위접속사가 단순히 접속부사의 기능을 대체해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문맥 속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통사적 측면에서도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등위접속사의 위치는 절의 맨 앞자리로 제한되는 반면, 접속부사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접속부사 다음에는 콤마(,)를 사용하는 반면, 등위접속사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1) a. John plays the guitar, *and* his sister plays the piano.
- b. *John plays the guitar; his sister *and* plays the piano.
- c. John plays the guitar; *moreover*, his sister plays the piano.
- d. John plays the guitar; his sister, *moreover*, plays the piano.

즉, 등위접속사는 선행하는 절에 대한 연속적인 순접, 역접, 선택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항상 선행하는 절 다음에 나와야 하며, 순서가 바뀌면 (2)에 처처럼 비문이 된다. 따라서 등위접속사는 두 개의 절을 연결하면서 반드시 후행절의 문두에 위치해야 하므로 문장의 맨 앞자리에는 나올 수 없다.

- (2) a. They are living in England, or they are spending a vacation there.
 - *b. Or they are spending a vacation there, they are living in England.
-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1972: 921)

이처럼, 등위접속사의 위치는 후행절의 맨 앞자리로 제한되므로, 문미에도 나올 수 없다. 반면에, 접속부사는 문두, 주어와 동사 사이뿐만 아니라, 문미(clause-final position)에도 나올 수 있다.

- (3) They carved out a 5.7 per cent share of the overall vote, *nevertheless*.
- *They carved out a 5.7 per cent share of the overall vote *but*.

또한, 등위접속사는 상호 배타적으로 함께 나타날 수 없는 상보적 분포 (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보이는 반면, 접속부사는 등위접속사 다음에 함께 나타날 수 있다.

(4) **And but* they carved out a 5.7 per cent share of the overall vote.

And nevertheless, they carved out a 5.7 per cent share of the overall vote.

(Biber, Johnsson, Leech, Conrad, & Finegan 1999: 80)

흔히 등위접속사로 분류되기도 하는 ‘so’는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경계사이에서 애매한 성격을 지닌다. (1), (2), (3)에서처럼, 절의 경계에서 후행절 맨 앞에 위치하는 등위접속사의 속성을 지니는 반면, (4)처럼 등위접속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접속부사의 속성도 동시에 지닌다. 사실, (6)과 (7)의 문장에서 ‘and’ 없이, ‘so’만 있어도 무방하지만,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와도 (4)의 ‘*And but*’과는 달리 비문이 아니다.

(5) I can't say I'm looking forward to it, but it's essential, so it has to be done.

(6) My husband kept telling lies, and so I showed him material evidence.

(7) The foxes kill sheep, hens and scare animals, and so the farmers feel they have every right to kill these pests. (NE03-01)

통사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수형도(tree diagram)에서 보자면,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위치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접속부사는 문장부사(S-adverb)로써 부사구(Adverb Phrase)자리에 위치하지만, 등위접속사는 통사적 지위가 같은 단어, 구, 절을 연결하는 교차점(node)인 등위접속사(CC: Coordinating Conjunction)의 자리에 위치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등위접속사는 접속부사와 통사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와 혼돈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통사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접속어는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논리적, 의미적 기능까지 습득을 해야 하므로 텍스트

적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2.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텍스트적 기능

문장단위를 넘어가는 의미구조를 가진 접속부사는 일반 문장부사와 통사적 지위는 같으면서, 다른 의미구조체계를 지닌다. 등위접속사도 선행절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므로, 문장 간의 의미적인 계층적 구조에 따른 응집표지으로써 접속어의 텍스트적 기능 습득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접속부사는 텍스트 표층에 실현된 명제들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연결된 문장의 연속에 지니는 총괄적인 의미구조를 지닌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등위접속사는 명제의 모체 문장(matrix clause)내에서만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단층 구조를 지니므로 접속부사의 습득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접속부사의 위계적 의미구조체계가 확실하게 습득될 때까지, 모국어로 등가적 의미가 피상적으로 유사한 등위접속사와 혼돈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Traugott(1989)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화용적 패러다임은 명제적 의미(ideal meaning)의 표현에서 출발하여, 담화의 응집을 위한 텍스트적 의미(textual meaning), 그리고 화용적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적 의미(expressive meaning)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At the time that*'은 검증가능한 상황의 묘사로서 시간적 상황을 나타내는 명제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while*'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동안'의 의미를 지닐 경우, 두 사건뿐만 아니라 두 절 간의 응집적인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텍스트적 기능을 하고, '-하는 반면'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화자의 태도가 표출되므로 표현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화용적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접속부사는 선행문장과의 논리적 의미관계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텍스트적 의미를 지닌다. 등위접속사 또한 두 절을 연결하는 경우는 두 사건뿐만 아니라, 두 절 간의 응집적인 관계를 나타내므로 텍스트적 의미를 갖는다.

접속어의 텍스트적 기능은 로컬 접속(local links)과 글로벌 접속(global

links)으로도 나뉜다. Altenberg(1984)에 따르면, 구어적 담화에서 'because'와 'so'는 전형적으로 로컬 접속의 기능을 하는데, 바로 앞서 언급한 발화나 절에 한정된 이유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어적 담화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의 기능이 문단이나 전체 텍스트로 확장된 매크로구조로 조직화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절을 넘어 앞선 담화나 문단이상에서 텍스트의 많은 부분을 아우르고 있는 기능을 하는 경우를 글로벌 접속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Schleppegrell(1996)은 'because'에 대해 담화-기능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오직 언급한 문장에서만 관련이 있는 정보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로컬 기능(Local function), 둘째, 이전 담화와 응집력 있는 연결을 위한 응집 기능(Cohesive function), 셋째, 담화의 주제가 되는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신기능(New function)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ESL 학습자들은 로컬 기능에 의존하여 과잉 사용하는 반면, 원어민들은 주로 응집 기능으로 사용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원어민은 응집적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국부적 기능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09b). 이 연구 또한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코퍼스에서 접속사 'because'에 대한 텍스트적 기능의 사용에 대한 분석하였는데, 원어민의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비원어민의 사용 양상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Schleppegrell(1996b)의 연구에서 ESL 학습자의 사용 양상은 이 두 기능의 사용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한국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Oh(2009b)의 연구결과에서는 국부적 기능으로 사용한 경우가 현저하게 높게 나왔다. 영어수준별 상급과 하급 집단 간에는 5%의 차이를 보였을 뿐, 비원어민의 두 그룹에서는 영어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국부적 기능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상 살펴본 바, 접속어는 선행문장과 후행문장 사이의 텍스트적 기능을 동반하고, 2.1에서 언급하였듯이, 모국어로 등가적 의미는 유사하지만, 각각 의존형태소와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를 가진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는 자립형태소로만 존재하는 영어를 배울 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습득과 관련

하여 다음 장에서는 부분집합의 원리를 살펴보겠다.

2.3. 부분집합의 원리(The Subset Principle)

앞서 2.1에서 등위접속사는 한국어에서 접속어미의 의존형태소로 존재하는 반면 접속부사는 자립형태소로 존재하지만, 영어에서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가 모두 자립형태소로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등위접속의 기능을 하는 말의 형태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류는 제 2언어 학습의 메케니즘 이론의 일종인 ‘부분집합의 원리(the Subset Principle; Berwick 1985)’와 관련지어 설명해 볼 수 있다.

부분집합의 원리는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에 의해 작동되는 언어 학습의 원리로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제한적인 문법을 먼저 가정한다고 본다. 즉, 학습자가 입력(input)을 처리하고 출력(output)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더 제한적인 문법의 값(subset value)을 먼저 선택하여 가정한다고 본다. 자신이 가정한 제한적인 문법의 값과 다른 목표 문법(target grammar)을 긍정적 증거(positive evidence)²⁾의 입력에서 만날 때, 자신이 가정한 것을 변경하면서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는 언어 학습의 전략이다. 가령, L1이 L2보다 더 제한적 문법 값을 가질 때, 학습자는 확대집합(superset)의 값을 지닌 L2를 습득하면서, 긍정적 증거를 통해 L1에는 없는 입력을 만나면서 서서히 처음에 세웠던 제한적 문법 값에 대한 가설을 변경해 나가면서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보는 입장이다.

이 원리가 영어 접속부사와 등위접속사를 습득하는 한국 학습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형태학상으로, 접속부사와 등위접속어가 각각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로 다르게 존재하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L2 학습자가 둘 다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영어를 습득할 때, 더 제한적인 문법의 값은 자립형태소만으로 존재하는 영어의 경우이다. 따라

2) 긍정적 증거란 학습자에게 올바른 형태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O'Grady(2000)에 따르면, 실제로 학습자에게 계속 노출되는 문법적인 발화와 문장의 입력 데이터가 긍정적 증거가 된다.

서 한국 학습자는 영어 접속부사와 등위접속사에 대해, 둘 다 자립형태소라는 제한적 값을 먼저 매기게 되고, 긍정적 증거의 입력을 통해 자립형태소로만 존재하는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를 계속 만나게 되므로, 가설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L1인 한국어에서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접속부사에 대한 인식이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영어의 접속부사뿐만 아니라 등위접속사에도 그대로 전이가 되어,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와 교차사용하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구어적 요소가 배제된 대학의 학문적 글쓰기에 기반을 둔 한국 EFL 학습자의 영어 에세이와 원어민의 에세이로 된 코퍼스에서 나타난 등위접속사를 중심으로 관련 접속어에 대해 문맥을 고려하여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EFL 학습자와 원어민의 쓰기에 나타난 등위접속사의 실제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분석과 해석과 함께 L2 습득의 발달적 특징을 규명하고, 관련 전통 규범문법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자료

EFL 학습자 코퍼스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서 나타난 등위접속사의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 코퍼스를 2016년 2학기~2017년 여름 계절학기까지 서울 소재의 S대에서 영어쓰기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쓴 영어 에세이를 기반으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수강생들은 모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에세이 쓰기를 통한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신의 레벨에 맞는 분반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이다. 반에 학생 수는 20명 내외로 TETE(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의 원칙 하에 모든 수업 절차가 영어로 진행된다. 레벨은 1(low-intermediate), 2(moderate-intermediate), 3(above high-intermediate)로 나뉘며, 문장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소수의 학생은 R(Rudimentary)레벨에 배정된다. 각 레벨에

따라 교재는 동일하나, 수업은 교수자 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단 이상의 글쓰기가 익숙한 레벨 2에 배정된 총 58명의 학습자들로부터 구축된 코퍼스 데이터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레벨 2 수준은 MATE(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 레벨의 배정의 기준으로 볼 때 중급~중상급 정도에 해당한다. 학습자 데이터를 중급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언어습득 단계에서 과잉일반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에 대해 철회(retreat)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로(Yang, 2005, 2016), 언어습득의 역동성을 관찰하기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레벨 2에 대한 영어쓰기강좌의 커리큘럼은 한 문단쓰기부터 시작하여 다섯 문단짜리 에세이 쓰기까지 15주간 진행되며, 묘사, 절차, 내러티브, 의견 피력의 설득적 에세이, 논쟁적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의견 피력의 설득적 에세이와 논쟁적 에세이를 다루는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수집된 에세이 중 172개를 선정하여 학습자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172개의 에세이에서 산출된 단어는 총 52,379단어로 에세이 한 편당 평균 304.5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원어인 코퍼스로는 미국과 영국의 대학생들의 에세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LOCNESS(the Lovain Corpus of Native English Essays)에서 분석하였다. LOCNESS는 ICLE(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 English) 프로젝트에서 참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축되었다(Granger 1998). 본 연구에서는 LCA(Learner Corpus Association)에서 2017년 7월에 직접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LOCNESS의 347개 에세이 중 총 단어수를 맞추기 위해 101개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코퍼스 자료는 다음 <표 2>와 같다.

3.2.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표 2> 학습자 코퍼스와 원어인 코퍼스 자료

Corpora	Number of essays	Number of words	words per essay
Korean EFL	172	52,379	304.5
Native English	101	53,882	533.5

www.kci.go.kr

대학에 재학 중인 원어민과 L2 학습자의 영어 에세이에서 나타난 등위접속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코퍼스에서 추출해 낼 구체적인 등위접속사를 선정하고, 각각 빈도수와 분포를 AntConc 3.4.4w(Windows 2014 versio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tConc는 Concordancing 소프트웨어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코퍼스 툴 중 하나이고, 특정 단어나 구를 KWIC(Key Word in Context) 방식으로 제시하여 빈도수나 분포뿐만 아니라, 문맥상에서 기능 및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d, but, or, so’의 네 개 등위접속사의 사용 양상에 초점을 둔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영어의 통사적 관점에서 핵심적인 등위접속사는 ‘and, but, or’이고, ‘so’는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특히, ‘so’는 학습자의 발화와 쓰기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접속사로 여겨지고 있다(Kang 2004; Back 2012).

먼저, 이들 등위접속사가 단어, 구, 절의 연결 중에서 어느 형태의 연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조사하고, 절 단위의 연결에서는 어떤 텍스트 기능으로 사용되는지를 문맥 속에서 정성적 방식으로 살펴본다. 추가로, 이들 접속사와 한국어로 등가적 의미가 유사한 추가, 대조, 결과를 나타내는 ‘Moreover, Furthermore, In addition, Also/However/Thus, Therefore, Consequently’와 같은 접속부사의 사용양상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한다. 접속어가 사용된 텍스트적 기능은 각 접속어가 사용된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KWIC 방식의 AntConc를 통해 각 접속어가 사용된 문맥을 보고, 정성적 방법으로도 각 접속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텍스트적 기능에 대해서는 Schleppergrell(1996b)의 연구에서 분류된 기능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에 초점을 두므로, 로컬 기능과 응집 기능에 중점을 두어, 국부적 기능과 응집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접속어의 텍스트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등위접속사가 있는 문장 내에서 그 접속어의 관계가 한정되는 경우는 국부적 기능으로 분류한다. 즉, 등위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절은 바로 선행하는 절에 대한 국부적인 정보 및 관계만을 나타낼 뿐 그 문장을 벗어나는 더 넓은 단위나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연결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어민의 코퍼스에서 나타난 국부적 기능으로 사용된 예이다.

- (8) ... The only way around the traffic problem is to have less car. There are three main ways of doing this: sharing cars, using public transport and walking or cycling. Sharing cars seems feasible, *but is unpopular for various reasons*. It removes the element of independence afforded by a car – you have to decide exactly when and where you want to travel ... (NE01-02)

‘합승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인기가 없다’는 *but*절의 내용은 선행절인 ‘합승이 실현 가능한 것 같다’와 대조 관계로 연결되었을 뿐, *but*을 포함한 문장을 벗어나 에세이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즉, *but*절은 문장 내에서 대조관계만을 나타낼 뿐 문장을 넘어 앞 문장이나 전체 에세이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국부적 기능으로 분류된다.

반면, 접속부사는 그 자체가 앞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응집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앞 문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된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8)의 예에서 보듯이, *However*는 ‘사유화가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이끌 것이다’라는 앞 문장의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부각시키며 담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미 앞서 언급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끝없는 사유화’라는 사유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However* 다음 문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9) A root cause for these problems is the endless privatization of anything and everything by this government... They say that privatization will lead to better service and prices. *However*, the advent of many, separate profit making companies running the roads and track can't be good for the consumer in the long term. ... (NE01-06)

이처럼 문두에 위치하는 접속부사는 문장의 경계를 넘어 앞 문장과의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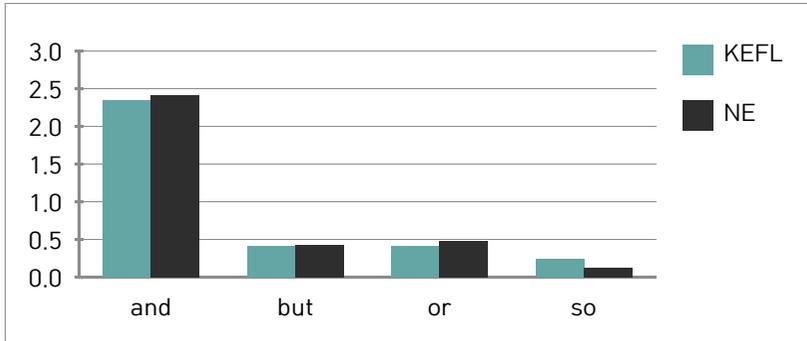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므로 응집적 접속어의 기능을 하는 반면, 등위접속사는 문장 내에서 선행절과 후행절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국부적 접속어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의 대안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문맥상에서 담화표지의 국부적 기능과 응집적 기능에 대한 사용 분포와 특징을 조사한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원어민 대학생(NE)과 한국인 대학생(KEFL)의 영어 에세이로 구축된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등위접속사, ‘*and, but, or, so*’의 사용 양상에는 몇 가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So*에서 빈도수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두 집단에서 모두 등위접속사 사용 빈도는 *and, or, but, so*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so*는 AntConc에서 나타난 총 횟수가 NE-코퍼스에서는 148번, KEFL에서는 207번이나 되었지만, ‘*so unreliable*’처럼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나 ‘*or so*’, ‘*so-called*’, ‘*so much as*’, ‘*so that ~ may*’, ‘*did so*’ 등 ‘결과’의 의미를 지니는 접속어가 아닌 다른 범주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원어민의 경우 148회중 85회가 결과의 접속어가 아닌 용법으로 사용되어, 전체 ‘*so*’ 중 절반이 훌쩍 넘는 57.43%나 제외되었다. ‘*Or*’도 동격이나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와 ‘*but*’에서도 ‘*all but*’이나 ‘-외에’의 의미 등 대조의 등위접속어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를 하나하나 문맥상에서 추려내어 제외시켰다. KEFL의 코퍼스에서는 ‘*so*’에서만 등위접속사로 쓰이지 않은 경우가 74회가 되어 제외시키고, 다른 제외되는 경우는 없었다. <표 3>은 등위접속사가 쓰인 총 횟수와 에세이 한 편당 사용된 횟수 및 전체 단어 수에 대한 각 등위접속사의 사용비율을 나타낸다.

〈표 3〉 등위접속사의 사용 분포

Corpora	and		but		or		so		Total (per essay)
	token	per essay	token	per essay	token	per essay	token	per essay	
KEFL	1,232	7.16	218	1.26	231	1.34	133	0.77	10.54
	2.35%		0.42%		0.41%		0.25%		3.46%
NE	1,298	12.85	229	2.26	258	2.55	63	0.62	18.29
	2.41%		0.43%		0.48%		0.12%		3.43%



[그림 1] 등위접속사의 사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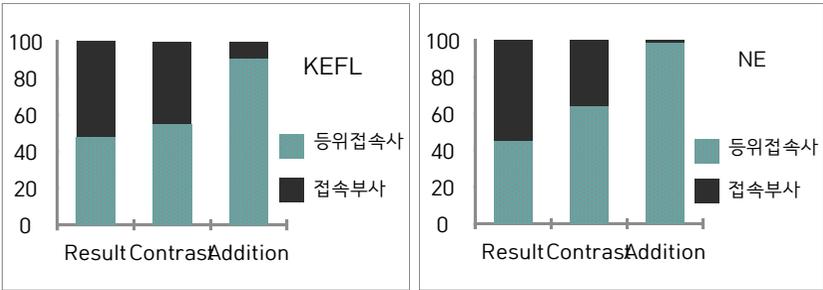
한국 EFL 학습자는 원어민에 비해 등위접속사를 과잉 사용할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상과 달리, 대학에서 중점을 두는 학문적 성격의 의견 에세이에서 나타난 등위접속사의 사용 빈도는 NE와 KEFL의 코퍼스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2〉에서 보듯이, 한국 EFL 학습자들은 에세이 한 편 당 평균 304.5개 단어를 사용하고, 이 중 10.54개(3.46%)의 등위접속사가 사용된 반면, 원어민은 에세이 당 평균 533.5개의 단어에서 18.29개(3.43%)가 등위접속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등위접속사는 두 코퍼스에서 모두 ‘and’(2.35%, 2.41%)였으며, 그 다음으로 ‘or’와 ‘but’이 0.4%대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so’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 ‘so’는 4개의 등위 접속사 중에서는 가장 적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so’ 자체의 총 빈도수 중에서

순수하게 등위접속사로 사용된 경우는 KEFL에서 64.25%, NE에서 42.57%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견쓰기의 에세이에서 인과, 대조관계의 접속어가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다소 벗어나고 있어, 그 원인을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접속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은 접속부사의 사용빈도가 나왔다.

<표 4> 대조, 결과, 부가의 접속부사를 포함한 접속어 사용 빈도수

Connective word		KEFL		NE	
Result	therefore	81	143 (52%)	49	72 (55%)
	thus	52		19	
	consequently	10		4	
Contrast	so	133 (48%)		63 (45%)	
	however	178 (45%)		129 (36%)	
	but	218 (55%)		229 (64%)	
Addition	moreover	12	81 (9.3%)	1	19 (1.5%)
	furthermore	29		0	
	in addition	23		1	
	also	50		17	
	and	1232 (90.7%)		1298 (98.5%)	



[그림 2] 결과, 대조, 부가의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사용 분포

부가의 접속부사는 불과 KEFL에서 9.3%, NE에서 15%임에도 불구하고, *and*의 압도적인 비율로 인해 전체적으로 부가 의미를 지닌 접속어가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됨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에

반해, 대조의 접속어로는 *However*가 KEFL에서 45%, NE에서 36%로 오히려 중급의 L2 학습자가 *but*보다 *however*를 사용하는 경우가 원어민보다 살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결과의 접속어는 등위접속사 *so*보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접속부사의 사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등위접속사 *so*의 빈도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타난 원인이 학문적 글쓰기에서는 *so*보다는 같은 의미의 접속부사를 사용해야 하는 함이 중급레벨에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구어체와 달리 학문적 에세이에서 묻어나는 산문체의 사용역(register)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중급 레벨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급 단계의 학생들은 학기 초에 한 문단짜리 에세이에서 시작하여, 차츰 3~5문단의 의견을 설득적으로 피력하는 에세이를 한 학기동안 써오면서 자연스럽게 문어체와 학문적 산문에 대한 사용역을 습득하기 시작한다는 하나의 징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단어/구, 절의 레벨에서 각각 등위접속사의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or*과 *so*에서 완전히 상반된 빈도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KEFL에서 *so*는 100% 절-단위에서만 사용되었고, NE에서도 5회(8%)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단위에서만 사용된 점이다. NE에서 *so*가 단어/구-단위를 연결한 5회도 모두 동사구가 연결된 경우로, 형태상으로는 동사구의 연결이지만, 선행절과 주어가 같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동사구로 연결했기 때문에 절-단위를 연결한 것과 다름없다.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or*의 경우는 절-단위보다 단어/구-단위 접속사로 사용된 비율이 두 집단에서 모두 90%를 넘는다. *And* 또한 단어/구-단위 접속사로 사용된 경우가 KEFL에서는 70.3%, NE에서는 63%로 절-단위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간에 확실한 차이를 보인 접속사가 바로 *but*인데, KEFL에서는 단어/구 보다는 절-단위로 사용된 경우가 12.8% 차이로 약간 많은 반면에, NE에서 *but*은 단어/구-단위보다는 절-단위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단어/구, 절의 단위에서 등위접속사의 사용 분포

Corpora	and ³⁾		but		or		so	
	단어/구 (%)	절 (%)	단어/구 (%)	절 (%)	단어/구 (%)	절 (%)	단어/구 (%)	절 (%)
KEFL	866 (70.3)	360 (29.2)	95 (43.6)	123 (56.4)	213 (92.2)	17 (7.8)	0 (0)	133 (100)
NE	818 (63)	480 (27)	65 (28.4)	164 (71.6)	237 (91.9)	21 (8.1)	5 (8)	58 (92)

〈표 5〉에서 보듯이 *so*는 절-단위 등위접속사로, *or*은 구-단위 등위접속사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And* 또한 절보다는 단어/구 단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은 반면, *but*은 이와 반대로 모두 단어/구 단위보다 절-단위 등위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원어민집단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처럼 문두에 사용하는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Or*과 *But*을 문두에 사용한 빈도수는 두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And*와 *So*의 경우는 두 집단에서 상이한 분포를 보였으나, 두 집단 모두 *So*를 접속부사처럼 문두에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KEFL에서 접속사로 사용된 *so*의 총 빈도수에 대한 문두 사용 비율은 3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NE에서도 23.8%로 등위접속사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But* 또한 24회(각각 11%, 10.53%)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And*는 39회(3.16%), 5회(0.39%) 나타난 반면, 흥미롭게도 *Or*이 문두에 사용되는 경우가 KEFL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고, NE에서도 단 2회(0.78%) 뿐이었다.

〈표 6〉 접속부사처럼 문두에 사용된 등위접속사의 빈도

Corpora	And	But	Or	So
KEFL	39(3.17%)	24(11%)	0(0%)	52(39%)
NE	5(0.39%)	24(10.53%)	2(0.78%)	15(23.9%)

3) KEFL 코퍼스에서 나타난 총 1,232개의 'and' 중 6개는 오류 사용으로 단어, 구, 절 단위의 분류가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or’은 확실하게 등위접속사로 인식이 되어 접속부사처럼 문두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문장 내에서 단어/구를 연결하는 기능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or*은 절-단위에서 사용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결과와 함께 *or*은 단어/구-단위 등위접속사로 문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확실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d* 또한 거의 문두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한국인 학습자들은 *and*를 등위접속사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조적으로 *so*는 문두 사용 비율이 39%나 되어 중급레벨의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so*는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로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so*는 원어민의 코퍼스에서도 문두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등위접속사로 나타났는데, 이는 2장에서 언급했듯이, *so*자체가 통사적으로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경계에서 애매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등위접속사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므로 다른 등위접속사와 함께 나올 수 없는데, *so*의 경우, (10), (11)에서처럼 *and*와 함께 나올 수 있다. 이러한 ‘*and so*’는 흥미롭게도 NE에서 단 19번 나타난 반면, KEFL에서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10) More and more people are opting to travel by car these days, and so there is not as much economical input. (NE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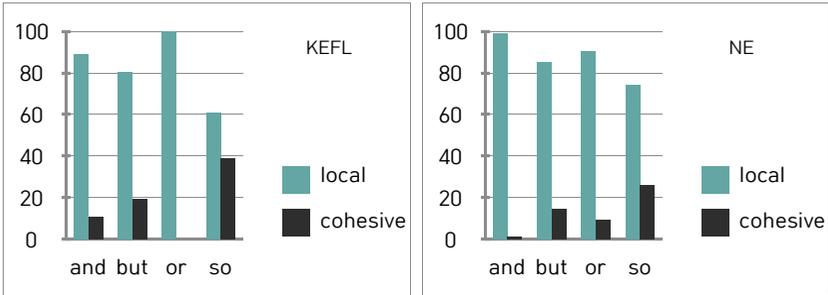
(11) People were worried that they would catch the human form of the disease and so experts were brought in to calm people down. (NE08-07)

(10), (11)에서처럼 *and* 다음에 *so*를 쓰는 경우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and then*에서 *then*처럼 *so*를 접속부사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수형도로 나타낼 때, 분명히 구분되는데, *and*는 CC(Coordinating Conjunction)자리에, *so*는 부사구(AdvP)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원어민에게도 *so*를 등위접속사가 아닌 접속부사로 혼돈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인 중급 EFL 코퍼스에서 ‘*and so*-절’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and so on*’이란 청크(chunk)가 9번 출현한 것으로 보아, *and so*다음

에는 *on*을 붙여 쓰는 관용어구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 KEFL 코퍼스에서 *so*는 100% 절-단위에서만 나타나면서, 원어민과 달리, *and* 다음에 *so*-절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 6>에서 보듯이 다른 접속사에 비해 *so*를 문두에 사용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난 점은 *so*를 접속부사로 혼돈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중급단계에 있는 한국 학습자는 *so*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단어/구, 절을 모두 연결하는 다른 등위접속사와 달리, *so*는 단어/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절을 연결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때,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주어와 동사의 동일한 구조를 지닌 문장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Thus, Therefore* 같은 접속부사와 혼돈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부분집합의 원리에 비춰 흥미로운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L2 학습자는 처음에 단문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먼저 단어/구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등위접속사를 사용하다가 점차 두 문장을 이어 보다 긴 문장을 생성하는 단계가 되면서, 등위접속사가 단어/구뿐만 아니라 절도 연결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접속부사를 접하게 되면서, 주어-동사 구조의 절과 문장을 연결할 때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 간에 혼돈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혼돈은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의 등위접속사가 형태학적으로 다른 점으로 인해 부분집합의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하고, -하지만' 같은 등위접속어는 의존형태소인 반면, 같은 의미의 '그리고, 그러나' 같은 접속부사는 자립형태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영어를 습득할 때, 학습자는 부분집합의 원리에 의해 더 제한된 값인 영어의 경우로 먼저 가설을 설정한다. 즉, 이 두 접속어가 모두 자립형태소라는 더 제한적인 값을 먼저 매기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접속부사에 대한 속성이 영어의 등위접속사를 사용할 때도 그대로 전이(transfer)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학습자는 영어의 긍정적 증거의 입력을 통해 계속 자립형태소로만 존재하는 영어의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만을 만나게 되므로 그 가설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강화되고, 화석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텍스트적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등위접속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모두 문장 내에서 한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로컬 접속의 기능을 하는 반면, 접속부사는 앞 문장과 연결된 관계를 제시하므로 그 자체가 응집적인 연결의 기능을 한다. 등위접속사의 텍스트적 기능은 문장 내에서 단어/구, 절을 연결하는 경우는 국부적 접속의 기능을 하지만, *so*와 *but*의 경우 접속부사처럼 문두에서 사용하게 되면, 문장 단위를 넘어 앞 문장에 대한 관계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응집적 접속의 기능으로 분류가 된다. 즉, 등위접속사의 텍스트 기능은 한 문장 내에서 단어/구, 절을 연결하는 경우, 국부적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고, 접속부사처럼 문두에서 사용되어, 앞 문장에 대해 결과, 대조의 관계를 연결하는 일부의 경우는 접속부사와 같이 응집적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등위접속사는 국부적 접속기능을 접속부사는 응집적 접속기능을 하지만, 접속부사처럼 사용될 때는 등위접속사라도 응집적 접속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3]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그림 3] 등위접속사의 텍스트 기능별 분포

이상 살펴본 바,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텍스트적 기능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동일하므로, 한국 학습자가 영어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처럼 교차 사용하는 현상은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접속부사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영어 등위접속사에 적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형태론적으로 영어에서는 접속부사와 등위접속사가 동일하게 자립형태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로 간주하면서, 그 텍스트적 기능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에 대해 언어 습득 시 과잉일반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철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급 레벨에 초점을 두어, 원어민 코퍼스와의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코퍼스에서 모두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인 *and*는 주로 단어/구-단위의 등위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but*, *or*, *so*의 순으로 나타나, 등위접속사로 사용된 *so*의 빈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특히, *so*는 다른 등위접속사와 달리 절-단위에서만 사용되었고, 접속부사처럼 문두에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등위접속사와 접속부사의 경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절-단위에서 보다 단어/구-단위에서 월등히 많이 사용된 *or*과 *and*는 문두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접속부사와 구분되는 등위접속사로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즉, 단어/구-단위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등위접속사일수록 문두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절-단위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접속부사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절과 문장에 대한 인식과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언어 습득 시 가장 역동적인 특징을 지닌 중급 레벨의 학습자들은 대학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에세이 쓰기에서 학문적 산문의 사용역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여 진다. 이는 문두에 등위접속사 *so*보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구어적 성향이 있는 데이터를 분석했으므로 *so*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과 3%의 차이만을 보이며, *so*보다 '*therefore*, *thus*, *consequently*' 같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접속부사의 사용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구어와 학문적 글쓰기 간에 사용역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존 형태소로 존재하는 등위접속어와 자립형태소로 존재

하는 접속부사를 모국어로 가진 한국 학습자는 둘 다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영어를 배울 때 부분집합의 원리에 의해 등위접속사를 접속부사로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여겨진다. 자립형태소로만 존재하는 영어의 경우가 더 제한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먼저, 이 두 가지 접속어에 대해 자립형태소의 값이 매겨지고, 모국어에서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접속부사에 대한 개념이 영어의 등위접속사에도 그대로 전이된다고 보여 진다. 즉, 모국어에서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접속부사가 영어에서는 접속부사뿐만이 아니라 등위접속사도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므로 형태론적인 면을 보고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연결하여 볼 때, 단어/구-단위보다는 주로 절-단위에서 많이 쓰이는 *but*과 *so*에서 나타나는 데, 중급 레벨에서 학문적 산문에 대한 사용역이 인식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접속어 및 담화표지 사용 양상에 관한 후속 연구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고, 영어쓰기지도에서 등위접속어와 접속부사에 대한 형태-통사적, 담화-화용적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Altenberg, B. (1984). "Causal linking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Studia Linguistica* 38(1), 20~69.
- Altenberg, B. & Tapper, M. (1998). "The use of adverbial connectors in advanced Swedish learners' written English". In Granger, S. (ed). *Learner English on Computer* 80~131. Harlow: Addison Wesley Longman.
- Back, J. (2012). "A corpus-based study of adverbial connectors in Korean EFL students' academic Writing: Cohesion and Rhetorical Patterns". *Studies in Modern Grammar* 69, 117~147.
- Berwick, R. (1985). *The Acquisition of Syntactic Knowledge*. Cambridge, Mass.: MIT Press.

www.kci.go.kr

- Biber, D., Johansson, S., Leec,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Pearson Education.
- Blagoeva, R. (2001). "Comparing cohesive devices: A corpus-based analysis of conjunctions in written and spoken learner discourse". In P. Rayson, A. Wolson, T. McEnery, A. Hardie & S. Khoja (Eds.), *Proceedings of the Corpus Linguistics 2001 Conference* 59~63. Lancaster, UK: Lancaster University Press.
- Bolton, K., G. Nelson & J. Hung. (2003). "A corpus-based study of connectors in student wri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7, 165~182.
- Celce-Murcia, M., & D. Larsen-Freeman.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2nd ed.). Boston: Heinle & Heinle.
- Field, Y. & L. M. O. Yip. (1992). "A comparison of internal conjunctive cohesion in the English essay writing of Cantonese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of English". *RELC Journal* 25(1), 15~28.
- Granger, S. (1998). *Learner English on computer*. London: Longman.
- Johnson, S. D. (1992). "A framework for technology education curricula which emphasizes intellectual processes".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3(2), 29~40.
- Milton, J. & E. Tsang. (1993). "A corpus-based study of logical connectors in EFL students' writing". In Pemberton, R. and E. Tsang (eds.), *Studies in lexis*. 215~247.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Kang, Y. (2008). "The use of cohesive conjunctions in Korean EFL learners' written narrative discourse".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3(2), 97~122.
- Kim, M. (2004). "Korean EFL learners' use of conjunctions in spoken narratives". *Studies in Modern Grammar* 37, 219~238.
- O'Grady, W. & Archibald, J. (2000). *Contemporary Linguistic Analysis* (4th ed.). Addison Wesley: Longman.
- Oh, S. (2009a). "How to express causality: A comparison of native and learner corpora".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5(1), 321~347.
- Oh, S. (2009b). "Functions of Because in native English and Korean learner corpora".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5(3), 443~470.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Schleppegrell, M. (1996). "Strategies for discourse cohesion: Because in ESL writing". *Functions of Language* 3(2), 235~254.
- Traugott, E. C. (1989). "On the rise of epistemic meanings in English". *Language* 65, 31~55.
- Yang, C. (2005). "On productivity".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5, 333~370.
- Yang, C. (2016). *The price of linguistic productivity: How children learn to break the rules of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 Yoon, H. (2006). "A corpus-based analysis of connectors in Korean students' essay writing".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2(2), 159~178.

표시연

sypyo@sm.ac.kr

논문 접수일: 2017년 11월 22일

논문 심사일: 2017년 11월 27일~1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2월 14일